

교전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으며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니라. 인간과 그리고 모든 초목(草木)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지상에서 생존케 되느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자는 모두 신의 아이들이니라. 하늘 아래에 남(他人)이란 없느니라.

인간과 신이 서로 가깝고 친하게 지내어야 되느니라. 신을 두려워하면 신앙이 되지 않느니라. 신을 가까이 할지이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법이니라. 은덕(恩德)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세상에는 물 불을 가리지 않고 고행(苦行)을 하거나 단식, 금식 등의 수행을 하거나 하는 자가 있으나 그러한 수행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라. 매일을 불평불만없이 지내는 것을 수행삼아 삼으로써, 은혜를 받을지이다.

아름이 가서서 고마운 것이 아니니라. 늘 건강할 것이 고마운 일이니라.

신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 사람을 구원할지이다. 크리하여 신이 되도록 노력할지이다.

자신의 일은 다음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구원 받도록 기원하라. 그리하면 자신의 일은 신이 다 해결 주시느니라.

교단 본부 소재지 日本 719-01 岡山縣金光町大谷
전화(086542)3111

국제 센터 소재지 日本 113 東京都文京區本郷2-17-11
전화 (03)3818-3701

온 누리에 구원의 빛을



금광교



금광교(金光敎)는 19세기 중반(1859년)에 도교(道敎), 유교(儒敎), 불교(佛敎), 신도(神道) 등의 종교들이 융합된 일본의 종교 풍토 속에서 한 농민인 곤코 다이진(金光大神 금광대신)(1814~1883년)이 신의 의뢰를 받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한 데 그 기원이 있다.

금광교(金光敎)란 말은 한자 그대로 금색 빛의 가르침이란 뜻이 된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곤코 다이진(金光大神 금광대신)의 가르침에 따라 금빛으로 빛나 인간 세계를 밝게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란 뜻이 된다.

곤코 다이진(金光大神 금광대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신의 이름은 '덴치 가네노 가미(天地金乃神 천지금내신)'이라 한다. 이 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을 끊임없이 살아 숨쉬어 자라게 해 주시는 신이다. 생명이있는 존재를 밖에서 보살피 주시고 혜택을 주심과 동시에 생명 속에 있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덴치 가네노 가미(天地金乃神 천지금내신)가 아버지 신이시며, 덴치 가네노 가미(天地金乃神 천지금내신)에게는 인간이란 민족, 종교의 구별없이 모두 다 사랑하는 아이들인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는 부모자식 간의 갈등으로 서로 싸우거나 관계를 끊거나 해서 부모를 슬프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관계가 되었더라도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전체의 아버지이신 신은 비록 인간이 신을 무시하거나 신과의 관계를 끊거나 해도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인간의 고통은 바로 신의 고통이며 아이들인 모든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되기를신은 기원하고 계신다.

인간은 신의 은덕(恩德)으로 살고 있는 존재이자 신의 생명이 나누어진 신의 아이들이며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신의 기원·활동을 실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곤코 다이진(金光大神 금광대신)이 보여준 신앙에 기초하여 사람의 고뇌를 아버지신께 기원하고 아버지



신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며 구원하는 것을 금광교(金光敎)에서는 '도리츠기(取繼 취계)'라고 부른다.

금광교(金光敎)의 신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가족은 물론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리츠기(取繼 취계)하여 구원하는 활동을 한다.

교회는 남녀,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언제나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열려 있는 종교시설이요 신자들에게 의한 구제의 활동을 위한 중심이다. 현재 교회는 세계 각지 약 1700 군데에 있으며 신자 총수는 45 만명이다.

교회에는 교단이 인정한 교사(4300명), 준교사(準敎師)(1500명)이 있어 각각 그 종교적 역할을 담당 활동하고 있다.

교회가 없는 지역, 국가에서는 신자들이 그들의 집, 집회소, 기타 시설을 이용 모교활동을 하고 있다.

금광교(金光敎) 신자들의 신앙의 고향으로서의 본부는 일본 오카야마현 곤코초(岡山縣金光町)에 있으며, 거기에는 교단의 여러 기관 시설들이 모여 있다.

금광교(金光敎)는 교단의 기관, 교회, 신자 활동을 통하여 덴치 가네노 가미(天地金乃神 천지금내신)의 가르침의 빛을 받으면서 신의 아이들인 온 세계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어 가며 영원히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 구축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